

배포 일시	2022. 6. 14.(火)			
담당 부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2-2131-2040)
		담당자	사무관	장승권 (02-2131-2037)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70)
		담당자	사무관	안성보 (044-201-7174)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보도 주요내용 ('22.6.14일, 경향신문) >

- ◆ 발암물질 용산공원 '하루 2시간' 이용시간 제한 유명무실
- 오염토양에 대해 '주3회, 하루 2시간 이용' 체류시간 제한은 정부 방침

-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 임시개방 사례*, 1일 개방시간(10시간)과 입장회차(5회), 편의시설 수용량, 공원 평균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시활용) '10.4~'10.9월 ⇨ (오염정화) '11.4~'12.8월 ⇨ (공원 개장) '14.5월
-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

** '15년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 여론조사 보고서 결과, 1회당 통상 2시간 이내 이용

- 아울러,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예약하신 회차에 입장하신 후에는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람 지역은 산책로 조성, 잔디식재 등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위에 있는 푸드트럭 및 음용수체험 부스 등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120년 동안 금지되었던 용산공원
**시범개방으로
 더 가까이
 국민을 맞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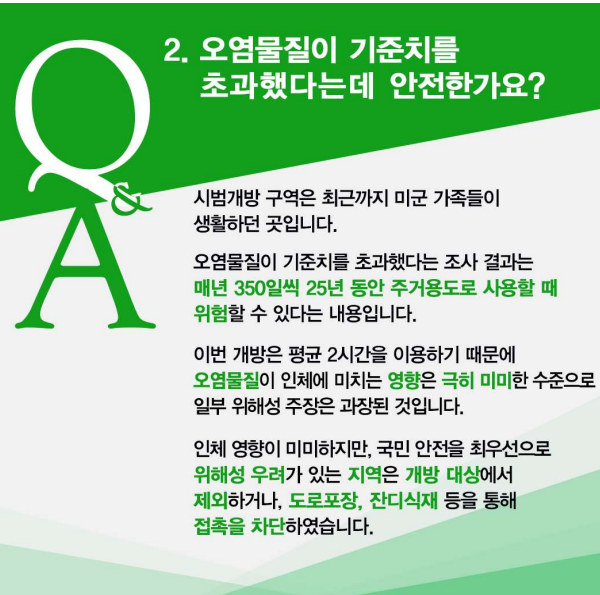
1.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추진한 이유는요?

용산공원 남쪽부지는 임시개방하기로 지난해 결정된 것입니다.

올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용산공원을 체험할 기회를 미리 제공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국민안전이 보장되는 개방구역 설정과 조치를 전제로 한시적(6.10~19, 10일간)인 시범개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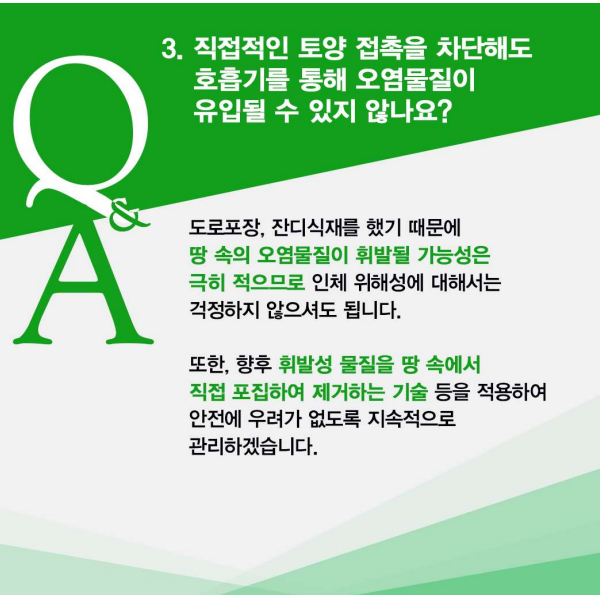
2.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데 안전한가요?

시범개방 구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입니다.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년 350일씩 25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방은 평균 2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일부 위해성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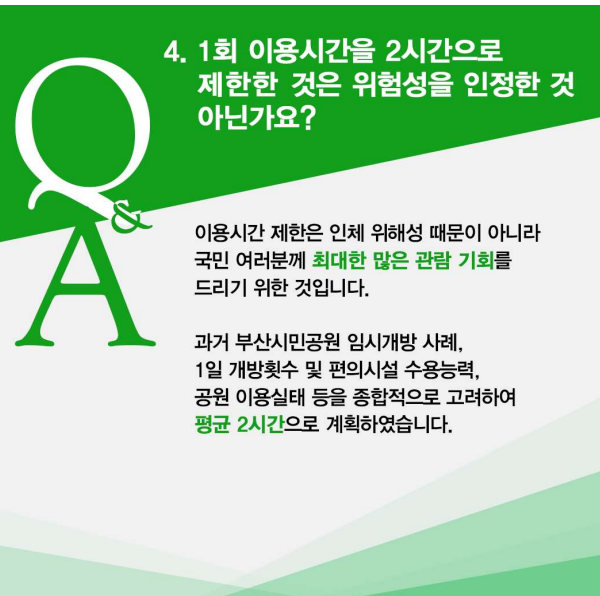
인체 영향이 미미하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3. 직접적인 토양 접촉을 차단해도 호흡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지 않나요?

도로포장, 잔디식재를 했기 때문에 땅 속의 오염물질이 휘발될 가능성은 극히 적으므로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향후 휘발성 물질을 땅 속에서 직접 포집하여 제거하는 기술 등을 적용하여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 1회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위험성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이용시간 제한은 인체 위해성 때문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관람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부산시민공원 임시개방 사례, 1일 개방횟수 및 편의시설 수용능력, 공원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2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산공원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